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5호 【루계 제24748호】 주체10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항공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높이 모시였다

뜻깊은 항공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식이 29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주체적항공무력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것은 주체의 선군태양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여있던 절절한 념원이 실현된 대경사이다.

전체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이 대하를 이룬 제막식장은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제막식에는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종업원들, 군인가족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과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벗겨지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와 항공 및 반항공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항공 및 반항공군 각급 부대, 백두산장군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조선의 강성번영할 미래를 안아오신 절세위인들을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군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는 우리모두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항공 및 반항공군의 력사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건군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해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선견지명으로 항공무력부터 창설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주체적항공군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첫 현지지도를 신의주항공대를 찾으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고 마지막현지지도의 자욱도 항공군부대에 남기시면서 육친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항공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일찌기 비행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제일생명이라는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당을 따라 충정의 항로만을 날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항공 및 반항공군을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온 나라의 비행장들과 고사포진지들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고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비행사들을 위해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한없는 은정은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에게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준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항공 및 반항공군은 근 70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었다.

새 조선의 첫 항공대창립으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항공 및 반항공군을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빛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항공무력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성대한 비행사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까지 합쳐 비행사들에게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항공절을 맞으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시도록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수많은 단위 일군들과 군인들, 가족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훌륭히 형상하였으며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오늘의 대경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빛나는 결실이다.

연설자는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체 장병들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항공 및 반항공군안의 전체 장병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장병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부대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이 제시한 군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항공무력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는데 군사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장병들이 14명 육탄비행사들처럼 사상과 신념의 강자, 도덕의 강자로, 하늘의 불사조들로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비행부대, 구분대들에서는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높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전투근무를 긴장하게 수행하며 비행훈련을 체질화, 생활화, 습성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을 만능비행사로 억세게 키워야 할것이다.

병종, 전문병훈련을 힘있게 벌리며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원성능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부대들에서는 콩농사와 수산, 축산의 3대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후방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며 군중문화체육사업을 활발하게 조직진행하여 대오안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중대, 대대강화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그 체계안에서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항공 및 반항공군안의 모든 부대를 무적필승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후손,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사, 제자답게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를 펼치신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1(1972)년 4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3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문학예술혁명의 나날 혁명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1(1972)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0(1971)년 12월

새로 편찬한 **김일성**동지혁명력사도록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8월

황해제철소에 보낼 자동화설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2(1973)년 10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3월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3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 구호를 뼈에 새기자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던 때로부터 1년이 흘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사업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대를 이어 하는것이 혁명이다. 올해 백두산에로 향한 답사행군대오는 끊길줄 몰랐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 당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이것은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기어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며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두산의 정신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은 어지러운 광풍을 과감히 헤치며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온 성스러운 행로였다. 지난 세기에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몰아온 부르죠아바람, 수정주의바람에 의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속에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사상적동요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편》바람에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줴버리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 신념이 떨떨한자들도 나타났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런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언제나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싸워왔기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백두의 칼바람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라는 혁명선렬들의 당부였고 죽음판에서도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거세찬 혁명의 폭풍이였으며 백전백승의 명맥을 이어준 활력소였다.

백두산이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솟아있고 백두의 칼바람이 멈춤없이 거세차게 휘몰아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언제나 안고 살아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을 알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여야 항일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애국의 넋을 체질화할수 있으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당의 영원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될수 있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더 자주 조직하여 모든 군인들과 인민들이 대원수님들의 위대성을 잘 알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려는 신념과 의지가 필요되고 힘이 진할 때마다 백두의 칼바람을 생각하여야 한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걸어온 승리의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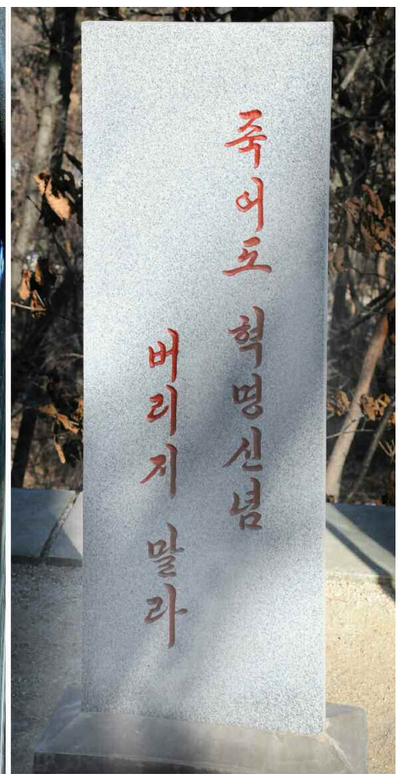
마두산의 구호문헌

마두산혁명전적지로정의 첫 입구에 문주와도 같이 서있는 구호문헌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찬바람 몰아치던 지난 1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의 무게를 담아 하시던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울리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은 수령님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혁명가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수령을 떠나서 혁명가의 신념에 대해 생각조차 할수 없다. 생의 매 순간순간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여기에 혁명가가 지녀야 할 혁명적신념과 의리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이 력사에 새겨준 이 귀중한 철리가 마두산의 사연깊은 구호문헌에 그대로 어리여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두산혁명전적지의 이 신념의 구호앞에서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바람을 일으키시였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뿌리내린 백두산에로 군인들과 인민들을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로 일으킨 백두산바람은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이 나라 인민의 사상정신상태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적신념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정화시켜주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것은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에 끓고있은 고귀한 사상감정이다.

뜻깊은 지난 선군절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에도 지난 1월에 마두산혁명전적지에 가서 구호나무를 돌아보다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보았는데 아주 좋은 구호이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고 력사적인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시면서도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싸움군들의 가슴마다에 이 견결한 혁명정신을 억척같이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누구나 마두산의 구호문헌을 가슴에 안고 살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력력히 아로새긴 이 글발, 오늘도 우리 가슴에 그들의 맥동이 그대로 높뛰게 하는 이 신념의 구호를 넋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 따라 이어온 우리 혁명의 진군로를 불굴의 신념으로 헤쳐나갈 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준혁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뜻깊은 5.1절에

항일무장투쟁이 엄혹한 시련을 뚫고 새로운 분수령에 오르던 주체29(1940)년 5월 1일이였다.

5.1절을 맞는 대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준엄한 내외정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류례없는 간고한 로정을 걸어왔다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나가자면 《적기가》에도 있는것처럼 우리는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항일혁명투사들은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조국해방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삼천리강산을 진감하게 되였다.

무재봉의 불사신들

무재봉이라고 하면 누구나 17명의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평범한 군인들이였던 17명의 용사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여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들로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빛내이는 것인가.

10년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재봉의 불사신들을 배출한 인민군대의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 들리시여 영웅전사들이 희생적으로 구원한 구호문헌들을 보아주시였다.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온몸이 다 타면서도 구호문헌에 한점의 손상이라도 갈세라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히 싸운 용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전시된 구호문헌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런 집단주의적영웅정신은 오직 우리 군대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며 영웅적인 행동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오직 자기 수령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투철한 신념과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자기들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구호문헌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하였다. …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수 없다고 하시며 용사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모두의 심장마다에서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적신념과 의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낳은것이라고.

혁명가들의 추억

주체100(201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에서 창조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보아주시고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엄혹한 시련앞에 비관하거나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고 락관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그렸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의 장면들을 들어가시며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결국 이 작품은 오늘에 와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추억이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이라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였습니다. …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

래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인간은 오늘을 값높이 추억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쓰라린 후회밖에 남을것이 없다는 인생의 철리를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새겨주신 우리 장군님,

래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업적이 영원하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추억은 그토록 긍지높은것 아닌가.

본사기자 정선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까지!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지난해 11월 백설천지의 삼지연땅을 찾으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결심을 더욱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백두산으로 달려가고있다.

설레이는 천고의 밀림과 휘몰아치는 칼바람속을 헤치고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된 이후부터 온 나라에 백두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3월 23일 백두산지구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답사행군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달려왔다.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입고 번쩍이는 백두산권총을 허리에 찬 그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체험하였다. 그 과정에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을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시원, 우리 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된 련합부대지휘관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현지에까지 찾아가시여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낸 그들을 축하해주시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올해 6월초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보천보와 리명수지구를 비롯한 항일전의 자욱이 력력한 백두산지구를 답사하였다. 군인들은 보천보의 밤하늘을 밝히며 삼단같은 불길이 타래쳐오르는 속에 장편서사시 《백두산》도 랑송하고 혁명가요도 부르며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결의들을 다지였으며 사격경기도 진행하였다.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속에 진행된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책임일군들은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더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가겠다.》

이것이 답사자들이 한결같이 터친 심장의 목소리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항일의 전구들을 찾고 또 찾는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신념과 의지 하늘땅에 넘친다.

본사기자 백영미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량강도와 각지 시, 군들에서 군민대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군민대회들이 량강도와 각지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신성한 공화국의 존엄을 함부로 헐뜯은 원쑤들에게 징벌의 철추를 내리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갈 기상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모략책동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릴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리상원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리일환,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림업관리국 국장 유치정,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도농근맹위원회 위원장 김성팔,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최경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조작한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 보장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권문제》란 존재할수가 없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반동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설자들은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책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으며 가증스러운 도발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뭉개버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켜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라고 하면서 미제와 그 하수인들이 《인권결의》를 날조해낸 흉악한 목적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적들의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도안의 로동계급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 원쑤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릴 전민항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생산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림업과 광업분야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도 원쑤들의 도발을 짓부시는 자주권수호의 결전에 떨쳐나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전시식량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농업생산을 늘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청년들이 원쑤들을 징벌하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의 선두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성스러운 이 투쟁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하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각지 시, 군들에서

김책, 희천, 정주시, 룡천, 박천, 장강, 어랑, 평원군군민대회들에서 참가자들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고안해낸 특대형모략극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연설자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이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조작한 정치협잡품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원쑤들의 최후발악의 산물이라고 낱낱이 까밝혔다.

인민군군인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며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로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온갖 원쑤들의 숨통을 영영 끊어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인권은 곧 국권이며 국권은 다름아닌 강력한 억제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진리를 새기고 포악무도한 적대세력들을 짓부시는 심정으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복수의 함성은 순천, 문천시, 북창, 정평, 고원, 명천, 운전, 황주군군민대회장들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연설자들은 미국은 력대로 우리에 대한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살과 같은 형형색색의 적대시정책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해온 철천지원쑤이라고 단죄하였다.

오늘 신성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그 어느때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되고있다고 하면서 미제가 고안해낸 《인권》기만극은 우리의 주권전복을 노린 반공화국모략의 가장 극악한 최신판이라고 토로하였다.

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더 많은 전력과 석탄 등을 생산하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것이며 과학농사열풍, 사회주의증산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성시, 강령, 연안, 장풍, 금강군 등 분계연선지구의 군민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허물어보려고 헤덤비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조금도 용서치 않을 멸적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를 도와 불타는 고지우에 탄약과 포탄을 나르던 그 정신으로, 4년전 연평도포사격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던 그때처럼 군민대단결의 불패의 위력으로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며 분계연선지대를 철벽으로 지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날강도무리들을 모조리 때려잡는 심정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뿐아니라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인민군대와 함께 전민항쟁에 용약 떨쳐나 반미대결전을 선군조선의 승리로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송림시, 서흥, 신평, 중강, 초산, 백암, 삼수군에서 진행된 군민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저들이 저지른 범죄를 놓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 사죄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가고있다고 하면서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 자립으로 위용떨치는 신성한 공화국을 헐뜯는것은 반인륜범죄의 극치이라고 규탄하였다.

박근혜패당과 일본, EU의 일부 어중이떠중이들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분노한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가져다주겠는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특대형모략극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성전에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군민대회들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보복의지를 담은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며 시위행진들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 론

과학은 사회주의기관차

조선은 억세게 힘을 뻗치며 비약의 나래를 크게 펴고있다.

문명강국의 웅대한 설계도와 꿈을 튼튼한 궤도우에 싣고 승리의 지평선을 향하여 기운차게 솟구치고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이 약동의 힘, 조선을 떠밀어 창창한 새시대를 열어나갈 그 강위력한 동력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이자 곧 힘이고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라는 우리 당의 의지가 시대를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은 사회주의기관차!

나라를 발전에로, 비약에로 질풍치게 하는 과학기술의 위력이 생동하게 안겨오고 우리의 모든 꿈 이루어질 래일이 환히 열린 대통로우로 소리치며 달려오는것만 같다.

이것은 오늘 제국주의원쑤들의 온갖 비렬한 반혁명적공세에 결정적인 공세로 맞받아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전략이며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천만군민을 힘차게 부르는 시대의 장엄한 표대이다.

1

푸른 물결을 헤가르는 돛배마냥 대동강기슭에 화려하게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10월의 하늘가에 눈부시게 빛나는 이 사랑의 탑에 오르시여 사랑우에 축복을 또 얹어주시던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과학으로 새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날로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안으시며 해빛같이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 사회주의문명의 새 아침이 밝아올 아름다운 강산을 그려보시며 확신에 넘쳐 하신 그이의 말씀에 조국이 밝아지고 인민의 희망은 저 하늘끝에 닿았다.

과학으로 만드는 새세상,

력사의 종소리와 같이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흔든다.

저 멀리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해방의 종소리 높이 울리며 인민의 새세상을 만들자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부르심처럼,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설계도를 펼치시며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시던 우리 장군님의 불타는 호소처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휘황한 앞날을 밝히는 위대한 선언이 울려퍼졌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과학으로 만드는 새세상은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처럼 환상이나 꿈에서 그려보던 모든것이 평범한 생활로 되는 황홀한 세계일것이다. 신비한 과학의 힘으로 펼친 행복과 문명의 별세상에서 제노라 하는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락을 마음껏 누리는 희한한 락원일것이다.

세대를 이어가며 참다운 인민의 새세상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온 조선혁명은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들어섰다.

사상과 총대를 추켜들고 세계강국의 전렬에 나선 강대한 우리 조국이 과학기술의 롱마를 타고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올라서는 최후공격전에 나섰다.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도처에서 변이 나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우리가 그려보는 미래가 료원한 꿈이 아니라는것을, 번영의 대문이 바야흐로 열리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심장하게 말해주고있다.

눈길을 높이 들어 조선속도창조로 끓어번지는 우리 조국을 둘러보라.

저기 세포지구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옥토가 되여 기름진 풀판들이 뻗어가고있고 청천강의 수백리 물줄기를 따라 과학의 힘으로 세월을 주름잡은 만년언제들이 치솟고있다.

자동화, 무인화된 최첨단의 생산기지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우리 제품들이 령역을 넓히고있으며 날로 발전하는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과시하는 건축의 대번영기, 조선의 체육신화가 세상을 놀래우고있다. 먹는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귀중한 성과들과 함께 동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물고기사태가 또 터지고 당정책옹위전, 과학화된 어로전으로 황금해의 새 력사를 기운차게 펼치고있다.

과학자가 시대의 절정에 오르고 나라의 도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속에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실험실과 연구소의 울타리를 벗어나 온 나라에 울리는 광범위한 시대어로 되고있다.

참으로 기쁘다.

이것은 몇개의 부문이 아니라 나라의 전반이 폭발적으로 도약할수 있는 무진장한 힘을 안고 일어선다는것을 말하며 바야흐로 이 땅에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진 대변혁의 파도가 다가오고있음을 예고하여준다.

전례없는 앙양에로 치닫고있는 이 격동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천하제일의 사회주의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를 보고있다.

우리 당은 결심하였다.

시대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이 조선을 번영에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후승리의 작전도를 펼치시고 위대한 손길을 높이 드시였다.

과학은 사회주의기관차!

우리가 가야 할 번영의 대통로가 여기에 밝혀져있고 조선이 힘있게 틀어쥔 필승의 보검이 여기서 번뜩인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건설하려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위대한 설계도가 압축되여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다시한번 세계앞에 솟구치게 하는 도약대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제1생산력으로 되고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하루가 아니라 일분일초를 다투는 시대, 새것의 창조를 위한 두뇌의 경쟁으로 국력이 좌우되고 민족의 흥망이 결정되는 치렬한 과학전의 시대이다.

힘과 속도, 안정성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위력한 견인기가 기관차이다. 과학기술이 나라의 전반을 선두에서 끌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관차가 될 때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도 뚫고 승리의 종착점을 향하여 기세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이다.

비약의 열망으로 불타는 온 나라가 과학기술을 부르고있다.

이름없는 협동벌의 작은 논밭머리로부터 수천척 지하막장과 굴지의 동력기지들에 이르기까지,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으로부터 거창한 공업도시들, 공장과 농촌, 목장과 어촌, 학교와 건설장은 물론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그 어디라 할것없이 전선에서 탄약을 찾듯 과학기술을 찾는다.

과학기술에 모든것이 다 있다. 하나가 백, 천이 되는 묘술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으며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방법론이 있다.

꿈을 이루자고 해도 과학기술이고 세계를 앞서자고 해도 과학기술이며 원쑤들을 이기자고 해도 과학기술이다.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수세기전에 아메리카대륙에 첫발을 들여놓은 저 유럽의 략탈자들이 거울쪼각과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고 인디안의 금은보화를 빼앗아갔듯이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눈을 펀히 뜨고도 자원을 강탈당해야 하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여 노예로 굴러떨어지는것이 오늘의 준엄한 현실이다.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은 마땅히 과학기술강국이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린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빛내인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대흥의 로동계급에게 경의를 드리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조선의 상표를 단 첨단제품,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귀중한 발명품들을 보실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에 흘러든다.

자기것이 없는 인간에게 어찌 존엄이 있을수 있으며 자기 힘으로 세계를 앞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강국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과학기술에 우리것이 있다.

100%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지혜로 만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눈덮인 대지를 박차며 저 우주로 날아오를 때 어찌하여 온 나라가 파도처럼 설레이며 민족의 대경사로 들썩하였던가.

그것은 우주에 닿은 우리의 힘, 우리의 존엄이였다.

지축을 뒤흔든 조선의 핵폭풍이 그랬고 세계에 이름날리는 조선의 CNC가 바로 그랬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뒤를 이어 천리마타일, 천지윤활유가 세계앞으로 달려나가고 주체과학기술이 안아올린 첨단제품들이 조선의 상표를 대견스레 달고 잇달아 줄을 짓고있다.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며 이 땅에서 련이어 터져오르는 최첨단돌파의 함성은 우리의 전진을 필사적으로 막아나서며 발악하는 원쑤들에게 내리는 무자비한 철추이다.

적들은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각도 과학기술적우세에 의거하여 침략의 더러운 이발을 더욱 시퍼렇게 갈고있으며 우리의 푸른 하늘을 향해 첨단살인장비들을 구름처럼 몰아오고있다. 비렬한 심리모략전과 함께 터무니없는 날조로 빚어진 《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며 반공화국살풍을 또다시 일으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무지한 발광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과학은 사회주의기관차!

민족적자존심이 펄펄 살아오르고 강대한 이 조선의 힘을 백배, 천배로 다져나갈 분발심이 심장의 피를 끓인다.

천만번 옳았다. 우리 당이 높이 든 병진의 기치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피물의 숨통이 영영 끊어지는 그날까지, 온갖 침략과 강권과 전횡의 역풍이 송두리채 가셔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을 조선혁명의 붉은기이다.

백두산칼바람으로 억세게 벼린 우리 혁명무력의 결사옹위정신과 단호하고 무자비한 공격정신과 함께 우리 식의 최첨단기술무기들로 제국주의의 강대성을 여지없이 들부셔야 한다.

지켜야 사회주의이고 빛내여야 사회주의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향해 백두에서 시작한 멀고도 험난한 길을 허리띠를 조이고 희생도 무릅쓰며 꿋꿋이 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참다운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고 온 나라가 화목한 친형제를 이룬 하나의 대가정, 인민을 위한 시책들이 가득차있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절대복무하는 이런 훌륭한 사회가 어디에 또 있는가.

이 크나큰 대가정의 뜨락에서 가슴속 소망과 꿈을 이루고 세상만복을 다 누려가려는 우리의 지향은 약동하는 이 시대와 함께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과학기술의 힘을 틀어쥐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것, 세계에서 가장 문명하고 눈부신것이 이 땅에 가득 차넘치게 하며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라 한시바삐 실현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매일, 매 순간의 마음속재촉이다.

진정한 과학발전의 길은 사회주의에 있다.

과학의 열매가 고스란히 인민의 행복이 되여 주렁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강력한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기술발전의 무제한한 힘과 양양한 전도를 안고있다.

사회주의가 틀어쥔 과학기술은 인민의 꿈을 이루어주지만 자본주의가 휘두르는 과학기술은 패권과 독점을 낳고 백만장자들의 배를 불려준다.

모든것이 리윤추구와 생존경쟁에 복종되는 자본주의에는 참다운 의미에서 과학적 진보란 있을수 없다. 과학의 힘을 악용하여 인간의 물질문명은 물론 인류의 도덕과 생명까지 파괴하는 자본주의는 신성한 과학의 토양우에 죄악의 독버섯을 자래우는 무서운 독뿌리이다.

조선을 떠밀어 휘황찬란한 미래에로 달리는 사회주의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이 땅을 진감하고있다.

꿈이 커지고 리상이 높아지고 나날이 젊어지는 시대, 사람마다 희망에 넘치고 날에날마다 변을 일으키며 사회주의락원의 새 아침을 향하여 줄달음치는 이런 벅찬 시대를 체험한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일인가.

용암처럼 끓고있는 오늘의 기세에 과학기술의 분화구를 터치면 그 폭발력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낳을것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제국주의의 집요한 봉쇄와 제재속에서 우리 나라가 자력으로 우주기술과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패권을 틀어쥔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북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천하제일강국이라는 말에는 북최고령도자의 웅대한 국가발전전략이 반영되였다.》고 전하였다.

무한대한 견인력을 가진 강성번영의 기관차가 우리에게 있다.

아마도 원쑤들은 최첨단기술로 장비되여가는 우리 공업의 잠재력이나 무진막강한 군력에 대해 가늠해볼수는 있을것이다. 하지만 조선사람의 두뇌의 힘은 결코 잴수 없으며 그 세찬 분출은 그 어떤 제재로도 막지 못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주체의 신념으로 피끓는 과학기술대군이 있으며 억대의 자연부원을 깔고앉은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과학기술,

이 강위력한 보검으로 조선은 문명강국에로 솟구치는 로동당세월의 힘찬 폭풍을 불러올것이다.

이 거대한 화산분출로 사회주의의 승리,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장쾌하게 선언할것이다.

2

조선의 과학에는 자기의 넋이 있고 고유한 발전법칙이 있다.

과학의 열매는 과학자가 가꾸는 사색과 열정의 거목우에 열린다.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더듬어 굳게 닫긴 과학의 문도 마침내는 힘차게 열어제끼는 그 왕성한 탐구의 열정은 과연 어디에서 솟는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조선의 과학자들은 말한다.

태양을 떠나 꽃의 만발함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을 떠나 과학자의 존재와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친다.

백두산위인들과 과학,

이는 주체과학의 승리적발전과 비약에 대한 격조높은 서사시이다. 가장 위대한 애국의 심장, 불덩이같은 인간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류례없이 줄기찬 개척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들이 기차와 비행기를 탈 때 갓쓰고 하늘소타고 음풍영월하며 세기적인 암흑에 잠겨있던 조선, 그나마 일제에게 통채로 짓밟힌 이 문명의 황무지에 주체과학의 주추돌을 박으시고 억척의 기둥을 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으시고 해방조선의 첫 기슭에서 국가창건에 앞서 종합대학을 먼저 내오신 우리 수령님,

지난날의 식민지지식인들을 넓은 품에 안아 새 조국건설에로 떠밀어주신 사연 그 얼마이며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나라앞에 거창한 과제가 나설 때 과학자들을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국가과학원을 창립하신 사실,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을 대학으로 소환하신 전설같은 이야기며 실험기구와 시약을 실은 자동차가 포화를 뚫고 달리게 하신 사연들을 이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주체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펼칠것이다.

그 위대한 손길이 있어 조선의 과학기술은 해방후 첫 기관단총의 총소리를 가슴후련히 터쳤고 일제가 마사놓은 제철, 제강소들에 증산의 불길을 활화산같이 지펴올렸다. 우리 자동차, 우리 뜨락또르, 우리 기관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달려나와 미제와 괴뢰들의 북진소동을 짓부시던 전후의 천리마시대와 더불어 혁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받들어올리는 강위력한 추동력으로 자라났다.

과학기술,

그것은 고난을 이긴 조선의 신념이였다.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에는 붉은기와 함께 과학이 있었고 총대와 함께 과학이 있었다.

혁명의 승패는 전략에 달려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미래를 위해 사상과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백승의 전략으로 추켜드시고 자신의 불같은 헌신으로 실천하신 희세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준엄했던 고난의 시기 나라의 CNC화를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안고 북방의 얼음길로 야전차를 달리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눈굽저리게 어려온다.

불빛꺼진 거리들과 숨죽은 공장들을 지나시며 식량난에 고생하는 인민들생각에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지으시던 우리 장군님, 그때의 추억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말없이 눈물지으셨으랴.

말이 쉽지 보통용단이 아니였다.

처절한 시련은 눈앞에 있고 희망의 래일은 저 멀리의 별처럼 반짝이던 그때 우리 장군님 내리신 결단은 조국을 불같이 사랑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주저없이 목숨도 내댈 그런 위대한 심장만이 내릴수 있는 운명적인 선택이였다.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던 그이의 심중에 간직된 그 희망은 바로 주체의 첨단과학기술로 장비하고 그 폭발적인 힘으로 솟구친 오늘의 강대한 조선이 아니였던가.

과학절을 제정해주실것을 바라는 과학자들의 념원을 헤아리시고 과학은 매년, 매월이 과학절과 같다는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을 친다.

애국으로 피끓는 그 위대한 심장에서 바람세찬 전선길을 과학지구에로 이으시며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시던 무한한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활약하는 과학자들을 최첨단돌파전의 《홍길동》으로 내세워주시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샘솟아올랐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따라 시련의 준령을 넘으며 성장의 키를 한껏 솟구친 그 영광의 년대들을 조선의 과학자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정녕 잊지 못한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은 주체과학기술의 무한대한 동력이고 영원불멸할 넋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선군조선의 기둥을 떠받드는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난 조선의 과학자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들로 시대의 전렬에 더욱 힘차게 나섰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

뜻깊은 태양절의 경축광장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라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울려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위대한 정식화는 행복과 번영의 새세상을 향해 이 땅의 과학자들을 소리쳐부르는 승리의 표대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정치가이시고 무적의 령장이시며 예술의 천재, 건축의 대가이신 동시에 인류가 우러르는 과학의 영재이시다. 출중한 실력과 해박한 식견으로 주체과학기술의 방향과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비범한 예지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출한 령도는 사회주의기관차를 앞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는 위대한 힘이다.

과학기술강국의 웅대한 목표를 내다보시는 그이의 심원한 사색속에서는 제노라 하는 강대국들이 조선의 발밑에 흘러가고 세계에 없는 희한하고 눈부신 모든것들이 이 땅우에 꽉 차있다.

그이의 과학중시사상은 과학기술이 철두철미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애민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우리 조국을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고야말 담대한 배짱과 민족적자존심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심장의 맥동이 사회주의기관차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있다.

세계가 놀라고있다.

높은 과학기술력을 토대로 하여 급속한 비약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놓고 지금 서방의 언론들은 서방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한 나라라고 말한다.

그 신비한 힘이 과연 어디서 뿜어지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화폭이 있다.

완공을 앞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시였던 그날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한 대상을 돌아보시고는 또 봅시다! 라고 하시며 다른 대상으로 향하시던 우리 원수님,

그렇게 온밤이라도 보내고싶고 마지막 집까지라도 다 들리고싶으시여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원수님께 일군들이 너무 무리하신다고, 날이 저물어간다고 절절히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그럼 날이 어둡기 전에 과학자들과 사진을 찍고 와서 마저 또 돌아봅시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지는 온 촬영장이 감격과 눈물의 바다로 변하던 그 시각 우리 원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대상을 돌아보시게 된다는것을 과연 누가 생각이나 하였으랴.

귀중한 하루를 또 그렇게 바치시고 떠나가실 때에는 과학자, 연구사들이 앓지 말고 행복하게 살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는것을 전해주라고 뜨거운 당부를 남기시였으니 진정 조선의 과학자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과학보다 먼저 인간을 보시고 자신의 열과 정을 뜨겁게 쏟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은 정녕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것이다.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그 2월에 과학자들을 위한 봉사기지에 **《미래상점》**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달아주시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하게 외우시며 아직은 나라사정이 어렵지만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대건설작전을 펼치시였다.

눈보라사나운 겨울에도 오시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찾아오시며 만점짜리로 일떠세우시려 그처럼 심혈을 바치시였건만 준공을 앞둔 때엔 꼭꼭 다시 나오시여 구석구석 세심히 료해하시는 그 다심한 손길, 그렇게까지 하시고도 모자라신듯 사랑에 은정을 거듭 쌓아주시고서야 이만하면 괜찮다고,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원수님!

불덩이같은 그 사랑, 그 진정에 과학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고쏟았다.

과학자의 눈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과학자의 심장에 불이 달릴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낳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을 믿고 준엄한 전쟁을 이기시였는데 우리 당은 과학자들을 믿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겠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은 조선의 과학자들을 인생과 투쟁의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워주었다.

나라의 존엄을 빛내이고 국력을 억척으로 다지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붉은 당기가 펄럭이는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앞에서 전우애의 화폭을 남기시는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우러르며 조선의 과학자들은 웨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삶의 피줄기가 있다!

절세위인의 사랑과 정으로 심장이 고동치는 과학자대군의 발걸음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불패의 혼연일체만으로도 조선은 과학기술에서도 단연 대국이며 우리는 이미 승리의 언덕에 올랐다고 세계앞에 당당히 선언할수 있다.

* *

과학으로 새세상을 만들자!

사회주의문명의 새시대를 펼칠 우리 당의 웅대한 목표가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의 불을 달고있다.

세계지도에서 진주보석처럼 빛을 뿌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광휘로운 미래를 향해 조선의 천리마가 나래를 힘껏 펼쳤다.

이 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조국과 인민이 뜨거운 시선으로 그대들을 바라보고있다.

그대들이 그리는 설계도에 조국의 미래가 그려지고 그대들이 내짚는 한걸음에 조국이 백걸음, 천걸음 전진하며 그대들이 지새우는 한밤이 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10년, 100년으로 이어놓게 된다.

오늘의 가치있는 과학발명 한건한건은 원쑤들에게 안겨지는 강력한 타격이고 인민에게는 무르익는 행복의 귀중한 열매가 된다.

조국은 아직 시련을 헤치고 인민들은 허리띠를 채 풀지 못하였다.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 기적을 창조하며 안아올린 금방석을 당과 조국은, 우리 인민은 누구에게 먼저 안겨주었는가. 그대들, 과학자들이 아닌가.

그런 희한한 금방석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고 그런 꿈만 같은 행복이 전체 인민의것으로 되게 하는 열쇠가 다름아닌 과학기술에 있기에 싸우는 전선을 원호하듯이 인민들은 진정을 바치고있다.

우리 당이 안고있는 최후승리의 시간표는 과학자들을 믿고 정한것이다.

폭풍을 맞받아 힘차게 기관차를 몰아가듯이 순간의 정지나 연착도 없이 최첨단의 봉우리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오늘의 천리마기수가 되자!

위대한 우리 당의 이 부름앞에, 비약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천리마기수라는 이 칭호앞에 떳떳이 나서자.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재더미에서 조국을 이끌고 사회주의대문으로 날아오른 천리마기수들처럼 강대하고 힘에 넘친 이 나라를 떠밀어 강성국가의 대문에 하루빨리 들어서자.

고난의 시기에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탐구의 배낭을 무겁게 지고 탄광으로, 농촌으로, 발전소로 발이 닳도록 걷고 또 걸은 량심의 인간들이 그대들이 아닌가.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 몸에 첫 실험을 진행한 애국자들, 조국이여, 기다리라, 우리 기어이 그대의 존엄을 저 우주에 떨치리라는 맹세를 안고 통강냉이를 씹으면서도 최첨단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간 그대들이 아니였던가.

그대들의 사색이 달리는 곳, 그대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최첨단돌파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지식경제시대의 대통로가 시원스레 쭉쭉 뻗어가게 하자.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낸 전후의 천리마기수들처럼 10년에 할 일을 1년으로 앞당기는 창조의 기수가 되자.

세계무대에서 조선의 체육신화를 창조하는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처럼 조선의 발명폭포를 터쳐 세계과학계를 람홍색공화국기로 꽉 채우자.

우리 인민의 꿈은 얼마나 아름답고 리상은 또 얼마나 높은가.

과학자라면 누구보다 심장이 높뛰고 꿈과 리상이 높아야 한다.

세계를 앞선것, 최첨단이 아니면 조선의것이 아니다.

이 땅의 물과 공기, 해빛과 한줄기 바람도 인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진귀한 보배로 만들자. 이 땅에 일어서는 모든 창조물들,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것으로 되게 하자.

조선의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를 과학기술로 받들어올리라.

화목하고 단결된 사회주의대가정에 희한한 문명의 새세상을 펼쳐 그 찬란한 빛발앞에서 자본주의물질문명이 무색해지게, 피비린 재부로 거들먹거리는 제국주의독점재벌들이 넋살이 떨어져나가게 하라.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는 제국주의원쑤들을 사회주의기관차의 무쇠발굽으로, 병진의 장쾌한 승전포성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라.

전체 근로자들이여,

오늘의 과학기술대진군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는 립체전이다.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준비한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대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자!

전후의 천리마에 온 나라가 올라앉았던것처럼 최후승리에로 달리는 사회주의기관차에 누구나 뛰여올라야 한다.

첨단은 결코 먼곳에 있지 않다.

강선에서 초고전력전기로를 만들 때 기존공식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었던 조작방법을 단번에 해결한 나어린 처녀기능공을 상기해보자.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최고발명가상을 수여받은 혁신적인 언제시공방법과 새로운 철생산체계를 창안한것이 우리의 평범한 군인들과 당일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자.

조선사람의 총명한 두뇌와 이악한 기질,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성이면 오르지 못할 첨단이 없고 열리지 않는 미지의 세계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이 펼친 설계도를 따라 이제 대동강의 쑥섬에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전당이 일어서고 전민학습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천만군민모두가 인재가 되고 발명가가 되여 백두산대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힘차게 앞당겨오자.

경애하는 원수님과 과학자들이 팔을 끼고 어깨겯고 앞장에 서있고 전체 군민이 하나의 승조가 되여 기운차게 몰아가는 사회주의기관차의 장쾌한 기적소리로 온 행성을 들었다놓자.

우리 원수님께서 대동강반의 눈뿌리 아득한 로대에서 해빛같이 웃으시며 내다보시던 사회주의지상락원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천만군민이여,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처럼 천만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단숨에 솟구쳐오르자!

조선의 힘, 조선의 결심이란 어떤것인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자!

백 룡

사회주의조국강산에 넘치는 그리움의 대하, 충정의 맹세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마음

세번째의 12월이 왔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고 천만가슴마다에 충정의 맹세가 더욱 굳세여지는 12월의 이 아침 우리는 잊지 못할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불같이 흘러온 세해를 돌이켜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한해한해를 어떻게 보내였던가.

그리움속에 흘러온 세해이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노래를 부르며 철령아래 전선지대에 사과바다를 펼치고 한해, 황홀한 새 거리를 펼치면 또 뵈올가 노래의 구절을 새기며 창전거리며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고 또 한해, 한평생 인민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시던 장군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사회주의바다 향기를 가득 날리며 또다시 한해를 보낸 군대와 인민이다.

그 날과 달들에 조국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을, 모든 고생은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공장과 마을, 학교를 찾으시여서는 해빛같은 미소만을 안겨주시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 정녕 잊은적 있었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새기였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모시고 살아왔으며 장군님께서 한평생 이룩하신 업적이 얼마나 큰것이였는가를.

피눈물의 그 나날 물고기수송을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 밤상에 신선한 물고기들이 오를 때, 외진 섬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오는 화폭이 변함없이 펼쳐질 때 수도시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은 알고받은 사랑보다 모르고받은 혜택이 너무도 크고 그를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로고가 사무쳐와 누구나 눈굽을 적시였다.

보람찼던 삶의 자욱자욱을 돌이켜볼수록, 행복했던 생활의 갈피갈피를 헤쳐볼수록 어버이장군님이 고맙고 그리워 천만군민의 가슴속맹세는 더욱 세차게 불타올랐다.

함남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보낸 편지 《피눈물의 맹세 목숨바쳐 지키자!》에 화답하며 온 나라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수도 평양에서는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건설이, 저멀리 북변에서는 희천발전소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이, 함북땅에서는 청진시살림집건설이, 함남땅에서는 흥남가스화 2계렬공사와 2.8비날론의 새로운 현대화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룡매도, 능금도간석지건설과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와 홍건도간석지건설, 마식령스키장건설, 창성군에서의 군소재지건설과 공장들의 현대화공사…

산은 산대로, 벌은 벌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장을 펼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이 땅우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그대로 창조와 혁신의 하루하루였다.

결코 수월하게만 흘러온 나날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비약하는 우리의 기상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과 우리 제도를 와해시켜보려는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 극도에 달한 반공화국《인권》소동…

그러나 원쑤들의 악착하고 비렬한 반공화국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었을뿐이다. 적들의 책동이 우심해질수록,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우리 인민은 그리움의 힘으로 더더욱 용기백배하여 전진하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이 나라의 힘이였다. 선군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마를줄 모르는 원천이였다. 그리움은 가장 숭고한 경의, 가장 깨끗한 도덕의리, 가장 뜨거운 사랑, 영원한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

불같이 흐른 세해에 이 땅에 가장 숭고한 경의와 가장 깨끗한 도덕의리의 화폭을, 가장 뜨거운 보답과 맹세의 실천을 낳게 한 그리움이여,

지나온 3년처럼, 앞으로 30년, 300년을, 아니 세세년년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 나라, 이 조선을 더욱 힘있게 떨칠 애국의 마음을 안고 12월의 이 아침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러 천만군민은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진다.

본사기자 김 치 곤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청천강반에 만발한 코스모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의리로 간직되여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자들에게는 무엇으로써도 메꿀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아직은 건설자들이 배낭을 풀어놓기도 전에 길 아닌 길을 헤치시며 언제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며 그토록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께, 누구보다 완공의 날을 절절히 바라신 그이께 발전소의 장쾌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그것이다.

하기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들은 새로운 전투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바로 그때 평성시대대에서 있은 일이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향해 대렬이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대대장이 보이지 않았다. 대대정치지도원 리재명동무는 짚이는데가 있어 얼른 지휘부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니나다를가 대대장 차영석동무가 자그마한 주머니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겨있는것이였다. 그 주머니에 코스모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꽃씨가 담겨져있다는것을 온 대대가 알고 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을 코스모스꽃향기속에 모시자고 했는데…》

대대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발전소건설의 나날 순간도 어버이장군님을 잊어본적이 없는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였다. 어버이장군님을 완공된 발전소에 모시는 그날 코스모스꽃향기속에 모시자고 높고 험한 도양령에 닦은 굽이굽이의 길에 코스모스를 정성껏 심고 가꾸어온 그들이였다.

철모르는 산골유치원아이들이 뿌리채로 드린 흙묻은 코스모스를 소중히 여기시고 승용차에 싣고가시며 오래오래 보신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 연분홍색, 흰색 등 색갈도 다양하게, 찬바람에도 굽힘이 없이 억세게 피여나는 코스모스를 각별히 사랑하시여 녀성들의 새 머리빈침에도 그 이름을 달아주시고 온 나라에 심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께 잠시나마 기쁨을 드리려고 누구나 코스모스를 심고 정성들여 가꾸어왔다.

코스모스, 그것은 희천발전소건설자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명사였다. 하여 그들은 물이 바랜 배낭속에 정성들여 채집해놓았던 코스모스꽃씨를 정히 넣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전투장으로 떠나갔다.

대대별로 전투임무가 확정되고 청천강반에 전투장이 전개되던 그때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일떠세우기에 앞서 코스모스꽃씨를 정성껏 뿌리였다.

발전소건설이 다그쳐지는 나날 돌격대원들의 정성속에 땅에 묻힌 꽃씨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구쳤다. 숙소주변에도, 발전소건설장가까이의 도로주변에도 코스모스의 새싹들이 머리를 내밀고 날마다 키를 자래우며 그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사무치는 그리움을 새겨주었다.

자연을 길들이는 건설전투에 쉬운 일이 어디 있으랴.

발전소건설은 자연을 길들이기 위한 전투였다. 난관도 많았다. 부족되는것도 많았다.

이들은 난관이 앞을 막을 때마다 새 전투장으로 달려나와 코스모스를 심으며 다진 맹세를 생각하였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폭양이 내리쪼이는 무더운 여름에도, 아니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그 맹세를 잊지 않았다.

이처럼 그리움으로 불타는 맹세를 안고 기적과 혁신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건설자들이 있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다그쳐지고있는것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명사—코스모스!

청천강반에, 아니 온 나라의 령길과 학교길, 공장의 구내길들에 만발한 코스모스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담아 더욱 활짝 피여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현 경 철

해빛같은 미소 못 잊습니다

선군시대의 태성할머니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로동과 생활의 서정을 담아 추억깊은 노래를 절로 부르게 되는 때가 있다. 때로는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다가도, 때로는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걷거나 탐구의 사색을 이어가다가도 문득 어느 영화의 주인공을 그려보며 주제가의 선률을 더듬기도 한다.

거기에서 인생의 커다란 힘과 고무를 얻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 생활의 밑바탕에 참신하게 뿌리내린 아름다운 노래들, 들을수록 인상깊은 명곡의 가치와 그 거대한 감화력에 대하여 새삼스레 생각해보기도 한다.

나도 역시 오늘 이른아침의 출근길에서 어디선가 울려오는 한편의 노래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 폭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

어버이장군님과 영결한 그날로부터 어느덧 세해가 되여온다.

그 날과 달들에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온 나라 조국강산에 울려퍼진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

노래는 창작되자마자 온 나라의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에서 널리 불리우며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였다.

‖수 필‖

명곡에 대한 생각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은 실로 천만군민이 그리움의 노래안고 진군해온 전변의 나날이였다.

지금도 사무치는 그리움의 선률을 대합창과 풀피리합주에 담으며 만경대유희장개건보수완공의 날을 앞당겨가던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어찌 이들뿐이였으랴.

최첨단의 령마루에 올라서 세계를 굽어보던 과학자들, 세계의 창공에 람홍색공화국기 휘날리던 영웅체육인들, 희한한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자랑스런 위훈도 그리움의 노래가 안아온 경이적인 기적이 아니였던가.

허나 이 노래를 부르는 천만군민의 마음이 그토록 뜨거운것은 비단 이 노래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실어다주기때문만이 아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진다고,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라는 노래구절이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온다.

언제인가는 《그리움은 끝이 없네》는 새로 나온 노래들중에서 제일 잘된 노래들중의 하나이라고,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자신의 심중을 그대로 터놓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를 그토록 소중히 안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기에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슴배인 현지지도로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자욱자욱 더듬으시였고 자랑스런 성과를 거둔 단위들을 찾으실 때면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이 말씀을 그리도 자주 외우시며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신것 아니랴.

무릇 위인의 눈물에는 가장 고결한 사랑과 철석의 맹세가 비낀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 원수님께서 간직하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사랑이고 영원불멸할 헌신의 맹세이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신념의 노래, 의지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인민을 위한 한길만을 가고가신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그리움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안으시고 궂은비, 찬바람을 다 맞으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니 대를 이어 누려가는 수령복, 장군복은 천만의 그리움을 충정과 보답의 맹세로 더욱더 피끓게 하거니.

사람들이여, 우리 어찌 이 노래를 그리움의 감정으로만 부를수 있으랴.

《그리움은 끝이 없네》, 정녕 이 노래는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사과꽃과 비날론폭포, 황홀한 새 거리와 최첨단 새 공장에 이어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선경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천만군민의 애국충정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장 정 철

선군시대의 태성할머니로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몸부림치던 때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여온다.

그 나날 언제 한번 우리 장군님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잠을 자다가도 꿈결에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뵙고 깨여나서는 그리움속에 한밤을 지샌 날은 그 얼마이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평범한 도로관리원에 불과한 제가 해놓은 일을 애국적소행으로 치하해주시며 선군시대의 태성할머니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던 어버이장군님.

나이 일흔이 훨씬 넘었지만 나는 오늘도 변함없는 충정을 안고 높고 험한 령길을 관리하고있다.

화창한 꽃계절이면 령길주위에 우리가 심은 코스모스며 들국화가 활짝 피여난다. 우리는 구봉령에 해마다 잣나무며 살구나무 등 많은 나무들을 심군 한다. 이제는 가족소대에 손자들도 새로 들어와 14명으로 늘어났다. 신청고급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후회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잘하여 2년전에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후회도 크면 당당한 가족소대원이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만경대가문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진 구봉령의 령길을 대를 이어 관리하는 선군시대의 태성할머니로 삶을 빛내여나가겠다.

성간군도로보수관리대
구봉령가족소대 김 성 녀

당의 참된 딸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이 땅에 세번째로 찾아온 12월을 맞이한 나의 가슴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꽉 차있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한개 공장을 책임진 지배인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 소행을 헤아리시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치하해주신 어버이장군님,

부모없는 아이들과 한식솔이 되여 공장합숙에서 지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평생 멀고 험한 령길주위에 계신 장군님의 로고에 어떻게 비할수 있겠는가.

지난 3년간 우리 공장에서는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여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도 공장으로 새로 데려왔다. 공장에서 키운 아이들속에서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까지 배출되였다. 몇해전에는 어엿하게 자라 가정을 이루는 그들에게 결혼상도 성의껏 차려주었다.

당에서는 크게 해놓은 일이 없는 저를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불러주었고 로력영웅칭호도 안겨주었다.

나는 끝없이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당의 참된 딸로 한생을 빛내이겠다.

만포방사공장 지배인
주 복 순

백두삼천리벌의 주인으로

12월을 맞이하고보니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우리 인민에게 따뜻한 행복의 길만을 열어주시려 내리는 찬눈비 다 맞으시고 12월의 그날에도 찬눈을 안고가신 우리 장군님,

이 땅의 찬눈비는 자신께서 다 맞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한생을 불태우시던 어버이장군님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축복속에 태여난 우리 홍단이가 이제는 자라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홍단이를 김정일소년영예상수상자로 내세워주도록 하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도 대표로 참가하도록 해주시였다.

우리 홍단이만이 아닌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는 혁명의 후비대들을 억세게 키워 선군혁명위업의 주인들로 내세우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며 절세위인의 축복속에 태여난 우리 홍단이를 백두삼천리벌의 주인으로 훌륭히 키워나가겠다.

대흥단군 서두농장
제5작업반 박 혜 금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티오피아대통령을 작별방문

【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김혁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1월 25일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을 작별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물라투 테쇼메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가장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와 조선사이의 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더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석성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그는 오늘도 전진하는 대오속에 있다

은산군 천성로동자구 송현탄광 3갱 굴진공이였던 박춘명동무

지난 9월 24일 아침교대에 속해 막장에 들어가던 송현탄광 3갱 굴진공 박춘명동무는 갱입구에서 안해인 김금희동무와 마주쳤다.

집에서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고 시어머니와 두 아들을 돌보는 김금희동무이지만 종종 탄광일을 돕군 하였다.

《수고했소.》

탄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툭툭 털며 갱을 나서는 안해에게 박춘명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또 하루 로동을 혁신과 위훈으로 빛내일 남편의 미더운 모습을 바래우며 김금희동무는 집으로 향하였다.

그로부터 몇시간후, 김금희동무는 남편이 붕락구간을 복구하던중 함께 일하던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날 교대에 들어간 박춘명동무는 굴진공들인 김선필, 리창선동무들과 함께 붕락구간에 대한 복구작업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어렵고 위험한 일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손을 다그쳐 동발을 드리우는데 달라붙었다.

김선필동무와 리창선동무는 올리굴 맨 우에 있는 박춘명동무에게 동발을 올려주려고 하였고 박춘명동무는 밑에서 올려주는 동발을 받아 제 위치에 드리우려고 준비하고있었다. 바로 그때 박춘명동무는 바위짬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안전등불빛으로 비쳐보니 벌써 이슬이 떨어지고있었다. 위급한 순간 박춘명동무는 동발을 쥐고 서있는 두명의 굴진공들을 확 밀쳐버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돌이 떨어져내렸다. 그는 이렇게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33살의 한창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여 값있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박춘명동무가 송현탄광에서 일한지는 16년째이다.

그가 탄부가 되던 날 굴진공이였던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실한 탄부가 되거라. 남들눈에 잘 뜨이지 않는 일터에서 일할수록 량심껏 일해야 한다.》

자기 일에 대한 량심, 그는 이것을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다. 탄부의 첫발을 떼는 그날부터 그는 막장길을 사랑했다.

끝간데없이 뻗은 땅속으로 석탄을 싣고나르는 전차도, 그것을 받들고있는 레루 하나도 그에게는 제살붙이처럼 소중했다.

《오래동안 탄광에서 일해온 나도 그처럼 탄부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굴진공 김선필동무의 눈에 추억의 물결이 일렁이였다.

박춘명동무와 김선필동무는 늘 함께 입갱도 하고 출갱도 하군 하였다.

한번은 둘이 함께 사갱을 내려가다가 로라가 벗겨진것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차도공이 할텐데…》

안전등불빛을 비치며 팔소매를 걷어붙이는 박춘명동무에게 김선필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허나 박춘명동무는 벗겨진 로라를 다 맞추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였다. 언제 봐야 교대 맨 마지막에서 내려가며 레루상태를 살피군 하던 박춘명동무, 때로는 보전공이 되기도 하고 전차길상태를 살피는 차도공이 되기도 한 그였다. 굴진공인 그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탄광일을 제 집안일처럼 여기며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속이 깊고 뜨거운 사람이였다.

중대장 정광수동무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였다. 탄광에서 병원까지는 수십리나 되였지만 박춘명동무는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병원에 찾아오군 하였다. 올 때마다 그는 꾸레미안에 쪽지편지를 두고 가군 하였다.

《27일현재 석탄생산계획 115% 수행.》

《지난해에 들어온 굴진공 리동무가 기능공이 되였습니다.…》

그 글을 보며 정광수동무는 힘이 나고 웃음이 나왔다. 순박한 박춘명동무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합숙생활을 하는 총각탄부를 집에 데려다 생일상도 차려주고 오랜 탄부의 가정에 손자가 태여났을 때에는 애기옷을 가져다주며 남을 위하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군 하던 박춘명동무였다. 굴진작업을 하다가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던 사람도 그였다.

《아마 그 나이에 고급기능공이 된 굴진공은 드물것입니다.》

3갱 갱장 박성철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한장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꽃목걸이를 척 걸고 웃으며 찍은 사진은 탄광문화회관 영예게시판에 나붙었던 혁신자사진이였다.

10여년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에 왔을 땐 그도 햇내기 탄부였다. 허나 그는 늘 성실한 탄부였던 아버지처럼, 탄광의 영예게시판에 이름이 오르군 하던 혁신자탄부들처럼 살기 위해 애썼다.

채탄공이 되였을 때에도, 굴진공이 된 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항상 그가 서있었다. 교대를 마치고도 막장을 뜨지 않고 착암기술을 배웠고 탄부가 해야 하는 크고작은 일을 몽땅 알기 위해 오랜 탄부들을 지꿎게 따라다니군 하였다.

그 나날 그의 기능은 한급한급 올라갔고 붕락구간복구와 같은 힘든 작업에는 그가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16년의 탄부생활에 박춘명동무는 탄광사람들의 가슴속에 훌륭한 탄부, 성실한 굴진공의 모습을 깊이깊이 새겨주었다.

탄광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박춘명동무,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 막장길을 성실하게 걸으며 일터에서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해온 그가 발휘한 고결한 희생성은 결코 우연히 발휘된것이 아니다. 자기 일터를 제 집처럼 귀중히 여기고 혁명동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는 마음, 한치의 굴을 뚫고 한대의 동발을 세워도 그것이 사회주의조국을 받들고 당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자각을 지닌 그였기에 그런 순간의 영웅성도 발휘할수 있은것이였다.

쩡쩡 동발을 박아세우는 메질소리, 암반을 쪼개는 정대끝에서 튀는 불꽃…

오늘도 지하막장에서는 자연과의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그 대오속에 박춘명동무는 없다. 허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굴진공이 된 박춘명동무처럼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탄부일을 대를 이어 할것이다.

혁명동지들이 일하고 자식들이 서게 될 탄전에, 나라의 맏아들, 지하전초병들의 대오속에 탄부들이 잊지 못하는 우리의 굴진공 박춘명동무는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12월중 지자기현상

12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5일 (22시-24시)
8일 (7시-9시)
12일 (11시-13시)
16일 (20시-22시)
23일 (1시-3시)
27일 (17시-19시)
31일 (13시-15시)

청진지방
3일 (21시-23시)
6일 (23시-24시)
12일 (2시-4시)
13일 (10시-12시)
20일 (21시-23시)
22일 (7시-9시)
27일 (11시-13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쑈악법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악랄하게 해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6년이 되였다. 지난날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보안법》은 파쑈통치배들의 권력유지와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시퍼렇게 독을 쓰고있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처참한 민주의 폐허지대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보안법》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파쑈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것이다. 그후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특히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다.

《보안법》의 파쑈적성격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있다. 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련북통일을 요구해나서는 사람들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처형할수 있다. 《보안법》에는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 반인권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뿐이 아니다. 《보안법》은 인민들의 초보적기본권리인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고있다. 이것만 놓고서도 《보안법》의 치떨리는 파쑈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문명한 21세기에 아직까지 온 남조선땅을 파쑈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런 중세기적인 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 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보안법》의 피비린 66년력사는 독재의 서슬푸른 칼날에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린 괴뢰들의 몸서리치는 만행의 력사이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유지와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살인도구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쳤다. 이 악법이 조작된지 불과 1년동안에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그 마수에 걸려 검거, 투옥, 학살당하였다. 그후에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용공리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이 악법에 기초하여 이루 헤아릴수 없는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이 조작되고 살인마들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무수히 체포투옥되고 야수적인 고문에 의해 학살당하거나 불구자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후예인 현 괴뢰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보안법》은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 그의 파쑈독재통치는 선임자인 리명박역도를 찜쪄먹고있다. 괴뢰패당은 《유신》독재를 완전히 되살려놓고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이전시기 합법적으로 활동한 진보적정당, 단체들과 언론기관들을 《종북》,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소동과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로조권리박탈시도, 《자주민보》폐간놀음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포악무도한 반인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되자 궁지에 몰린 괴뢰패당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각종 모략사건들을 꾸며내고 저들에게 반기를 드는 진보적인사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면서 사회를 철저히 파쑈화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날로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괴뢰패당은 남조선의 한 진보단체대표 황선을 《보안법》에 걸어 립건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괴뢰들은 그가 인터네트방송을 통해 수백차례에 걸쳐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떠드는 괴뢰들의 치떨리는 파쑈적몰골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탄압의 대상이 되여 철창속으로 끌려가고있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파쑈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한 성원, 울산대학교 한교수, 어느 한 영화감독, 대리운전사 등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을 《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씌워 체포처형하였다.

《보안법》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파쑈통치에 치를 떨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현 〈정권〉의 공포정치가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검찰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할것을 요구한데 이어 잇달아 수사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 단체의 변호사들을 기소해 닥치는대로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 지어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징계신청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녀간첩조작의혹을 보도한 방송기자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집권안보에 환장하여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으며 파쑈독재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현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폭로이다.

희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괴뢰통치배들이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도발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폐가 없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도, 북남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자신들의 견결한 투쟁으로 《보안법》과 함께 파쑈독재에 환장한 민족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청산하고야 말것이다.

라 영 국

정당활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행위

최근 괴뢰당국이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놀음이 각계의 커다란 비난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은 터무니없는 날조자료들을 근거로 이 당을 《종북》의 감투를 씌워 한사코 해산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얼마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수패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최종변론이 괴뢰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 여기에서 괴뢰법무부 장관이라는자는 통합진보당을 《북의 사회주의리념을 추구하는 당》으로 몰아대면서 이 당을 해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고아댔다. 《새누리당》패거리들도 《주체사상에 기반한 폭력혁명로선교육》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선고를 극구 부채질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집권세력의 강제해산책동은 사상 류례없는 파쑈적란동이다. 그것은 진보민주세력들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철저히 유린말살하며 날로 위기에 몰리는 독재통치를 유지하고 《정권》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비렬하고도 무지막지한 정치테로행위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유신》독재의 파쑈적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극악무도한 깡패집단이라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마련한 민주화의 흐름을 전면차단하고 독재통치체제를 구축한데 기초하여 반《정부》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탄압말살하고있는것이 현 괴뢰집권세력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소동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것은 그 누구에 대한 추종이 아니라 철두철미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따른것이다.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강한 주장은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공감과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다. 그런데 괴뢰집권세력이 통합진보당의 이런 정당한 활동을 무슨 리유로, 어떻게 심판할수 있는가. 현재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강제해산리유로 들고나온 《증거》들이란 모두 허위와 모략, 날조로 일관된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괴뢰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과정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21세기의 문명시대인 오늘 남조선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은 내외의 한결같은 경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괴뢰들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소동은 지난 세기 히틀러파쑈도당이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공산당을 강제해산해버린 만행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진보정당에 대한 강제해산놀음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남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의 완전한 폐허, 인권의 불모지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괴뢰패당이 통합진보당을 파쑈적인 《종북》소동으로 기어코 해산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저들의 당파적리익과 집권안보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극악한 민주의 교살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최근 괴뢰들이 유엔에서 그 무슨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강압통과시키는데 앞장서고 제 집안에서는 도발적인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하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아무리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며 소란을 피워도 그것은 남조선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조소만을 자아낼뿐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울수 없듯이 괴뢰들의 그따위 너절한 《인권》모략책동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조금도 흠을 낼수 없다.

남잡이가 제잡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괴뢰들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소동은 민주주의파괴, 인권유린으로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범죄자는 다름아닌 저들자신이라는것을 세계앞에 스스로 폭로하는 추태일뿐이다.

나라와 민족앞에 오만가지 죄악을 저지른 반역패당이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무덤속에 처박히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심 철 영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조선인민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나이제리아단체들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나이제리아단체들이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11월 26일 성명에서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등을 내세워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거수기를 긁어모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킨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규탄하였다. 또한 이번 대조선《인권결의》를 정치협잡품으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유엔무대를 도용하여 강압통과된 《인권결의》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귀중한 모든것을 완전말살해보려는 적대적기도의 총적인 발로라고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낸 이번 《인권결의》를 준렬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대로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하게 될것이다.

인권은 곧 자주권이며 해당 나라의 국권이다.

우리는 목숨보다 귀중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편에 변함없이 서있을것이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11월 25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기 위해 유엔무대에서 강권과 전횡, 회유와 매수의 방법으로 강압통과시킨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전면거부, 전면배격한다.

우리는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유엔성원국들이 조선의 국권을 해치려고 악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절대로 추종하지 말것을 엄숙히 선고한다.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 수뇌자회의 진행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 수뇌자회의가 11월 26일과 27일 네팔의 수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다 굳건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적발전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끝에 31개 조항으로 된 까뜨만두선언이 채택되였다.

미국무장관의 망발 비난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 대변인이 11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무장관의 망발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유태국가라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인종주의를 조장시키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또한 그것은 빼앗긴 령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즉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나라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있다. 11월 24일 카불에서 반미항쟁세력의 폭탄공격을 받아 2명의 미군이 황천객이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인종주의시위의 소용돌이속에 몸부림치는 인권불모지 미국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 감행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청년살해사건을 기화로 시작된 격노한 군중의 항의시위가 지금 온 미국땅을 휩쓸며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8월 9일 퍼구슨시에서 백인경찰이 18살 난 아프리카계미국인 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극도의 인종차별과 인간증오사상이 골수에 꽉 찬 백인경찰의 야수적인 만행은 수많은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퍼구슨시에서 시작된 반인종주의항의시위는 삽시에 전국각지로 확대되였다.

워싱톤과 뉴욕을 비롯한 100여개의 도시들에서 수많은 군중이 거리들에 떨쳐나섰으며 흑인청년을 살해한 백인범죄자를 비호두둔하고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당국이 중무장한 경찰들을 시위진압에 내몰았다.

경찰들은 군견까지 앞세우고 시위탄압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시위군중을 향해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아대며 폭압에 날뛰던 끝에 시위자들을 집단적으로 체포해감으로써 사회적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

각지에서 항의시위가 100여일째 지속되고있는 속에 11월 24일 현지사법당국은 주민들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백인경찰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법당국의 천만부당한 처사에 격노한 각지의 주민들은 대중적인 항의투쟁으로 당국의 반인종적, 반인권적행위에 맞설것을 선언하였다.

반인종주의항의시위는 삽시에 워싱톤, 뉴욕, 로스안젤스, 퍼구슨, 시카고, 쏜트 루이스, 오클랜드를 비롯한 전국의 170여개 도시로 확대되였다.

시위가 급격히 파급되는데 바빠맞은 당국은 그 진압에 군병력까지 동원시켰다.

무분별한 탄압으로 하여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1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방화혐의 등으로 구속되였다 한다.

사태가 이 정도로 번져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집권자는 오히려 그 무슨 연설이라는데서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파괴적인 행동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라느니 뭐니 하면서 《폭력행위에 관용은 없다.》고 뇌까렸다.

로씨야의 한 정치평론가는 미국집권자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아프리카계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좌절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미국력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선출되였을 때 그들은 미국인으로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권리가 향상될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그러한 희망은 한갖 환상에 지나지 않은것이였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외무성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 꼰스딴찐 돌고브는 성명을 발표하여 퍼구슨사태는 미국사회가 인권보호, 민주주의기준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제도적문제들을 안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란외무성 부상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조소하였으며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미국에서 벌어지고있는 현 사태는 인종차별이 이 나라 사회제도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전하였다.

유럽리사회 대변인은 평화적시위를 벌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이 사용되고 체포소동이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미당국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시위를 벌리는가 하는 리유를 저들의 사회정치적배경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물들은 흑인살해사건으로 미국의 인권기준이 국제언론계의 도마우에 올랐다고 비평하였다.

세계에서 인권범죄의 선수권을 보유하고있는 인권유린왕초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세상에 없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놀아대는 꼴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당국자들은 곪을대로 곪은 저들의 인권종처를 들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제재와 압력소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제2, 제3의 퍼구슨사태의 소용돌이속에서 절대로 헤여날수 없으며 종당에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오늘의 세계

미국의 강권과 전횡, 더욱 고조되는 국제적비난

《테로분자들을 소탕》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되는 미제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최근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적공습을 단행하여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함으로써 국제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미전에 수리아정부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을 형성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하면서 《반테로》의 간판밑에 자국령토를 공격하는 경우 그것을 침략으로 간주할것이라고 경고하였었다. 그러나 미국은 수리아와의 협의도 사전승인도 없이 군사적공습을 가하였으며 결과 무고한 주민들까지 살해하였다.

얼마전 수리아인권감시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이슬람교국가》를 목표로 하여 수리아에서 벌린 군사적공습으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5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되였다고 한다. 제분소와 곡물저장소, 가스공장 등에 대한 공습에 의해 민간인들이 사망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에 대해 《이슬람교국가》의 운송기지를 공격하였다고 뻗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이라크와 수리아령토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 《이슬람교국가》를 소탕한다고 하면서 다국적군을 조직하고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국경너머 수리아도 타격할것이라고 위협해나섰으며 9월말부터 《토마호크》순항미싸일까지 동원하여 수리아령내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였다.

오래전부터 반미자주의 구호를 들고나가는 수리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미국은 이 나라의 합법적정부를 거꾸러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년간에는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이 나라에서 내전을 일으켰으며 그 책임을 수리아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압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수리아정부를 전복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은 《이슬람교국가》를 타격한다는 구실밑에 수리아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여기에 수리아반정부세력과 추종세력까지 끌어들여 이 나라를 전복하려 하고있다.

국제사회계는 미국이 벌려놓은 군사적공격의 진의도를 따지면서 더욱 로골화되는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세계여론들은 미국의 진짜목적은 주권국가들에 또다시 군사적공격을 강행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힘으로 지배하려는데 있다고 평하고있다. 레바논국회 의장은 한 외교석상에서 수리아의 안정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서로 다른 종족과 종교적경향을 띤 4개의 지역으로 분렬시키려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의 불순한 목적에 대해 폭로하였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 부상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수리아의 고대유물들을 훔쳐내고 력사유적들을 파괴하도록 극단분자들을 부추김으로써 나라를 황폐화시키려 하고있다고 까밝히면서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적들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것이며 원쑤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상은 《수리아령내에서 진행하는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은 수리아정부와의 협력하에 계획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수리아정부와의 협력이 없이 실시하고있는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공중폭격을 비난하였다.

꾸바외무상은 수리아의 내정에 대한 서방과 그 동맹국들의 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이 지역에서의 극단주의와의 투쟁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란대통령은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것은 국제법을 위반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적승인없이 련합세력이 한 나라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것은 침입으로 간주될수 있다고 까밝혔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사령관은 한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배척받고있으며 수리아에서의 그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데서도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중동지역에서 벌리고있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자기의 취약성을 더 잘 드러내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도 수리아에 대한 공습참가문제를 극히 예민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프랑스는 수리아에 대한 공습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영국과 단마르크도 이라크령내 공습에는 나섰지만 수리아령내에 대한 공습과 지상전참가는 배제하고있다. 도이췰란드는 요청을 받더라도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수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일어나고있는 정치적혼란과 사회경제적불안정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권과 전횡, 침략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의 죄행은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만을 불러오고있다.

김 철 룡

격화되는 로미대결의 끝은 어디인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사태가 터진지도 1년이 넘는다. 그 기간 이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러저러한 비정상적인 일 또한 많다. 이 모든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문제를 저들의 지배주의, 패권주의야망에 써먹으려 날뛰는 미국의 책동에 기인된다.

더욱 격화되고있는 로미사이의 적대적갈등관계를 놓고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로미관계를 두고 《제2의 랭전에로의 진입》이라고 평하고있다. 매우 적중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실로 현 로미관계는 보다 심각한 랭전임이 틀림없다.

최근 로씨야가 랭전의 종식과 함께 중단했던 여러 사업들을 재개하려 하고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전 로씨야가 까리브지역 상공에 대한 장거리 정기공중순찰임무를 재개할것이라고 발표하고 미국령토주변에 장거리폭격기를 띄우는 군사적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는 《현 정세는 서대서양과 동태평양지역 그리고 까리브수역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진출을 요구하고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장거리비행을 위한 기술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수표하였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까리브지역 상공에 대한 장거리 정기공중순찰임무재개는 미국에 있어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이미전부터 로씨야는 미국이 까리브지역을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을 통제하는 발판으로, 세계적인 군사배치에서 저들의 《특골》로 여긴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런데로부터 로씨야는 2008년부터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와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씨야가 이 지역에 대한 공중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한것이다. 게다가 이 재개조치는 올해에 들어와 로씨야대통령과 외무상이 라틴아메리카지역 나라들을 순회방문하는 과정에 알바성원국들의 지지와 환영도 받았다.

바빠난 미국방성과 국무성은 로씨야의 행동이 미국에 있어서 위협한것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며 이 재개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로씨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강경대응으로 미국에 맞서나가고있다.

이전 쏘련과 꾸바가 랭전시기 미국을 대상으로 설치하였던 도청기지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설이 나도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기지는 까리브해위기후 1964년에 세워졌었다. 기지는 미국해안으로부터 약 250km 떨어져있으며 이전 쏘련의 최대해외비밀군사기지였다. 기지성원은 최고 3 000명이였다. 이 기지는 미국잠수함과 위성통신의 무선신호를 도청하였다. 2001년 9.11사건후 이 기지가 페쇄되였다. 여론들은 정말로 도청기지가 재가동된다면 미국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로씨야는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 나라들과의 협조에 힘을 넣고있다.

니까라과, 아르헨띠나, 브라질에 로씨야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를 리용하는 중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로씨야는 꾸바와 베네수엘라, 니까라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있다.

로씨야는 군사력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뿌찐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수공업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나라의 군사안보정책수정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관측통들은 이번에 수정되는 군사안보정책에 미국과 나토가 적으로 명백히 규정될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2018년까지 로씨야는 《워로네쥬》형전파탐지소를 전개하여 로씨야령토에 미싸일타격위협을 줄수 있는 모든 방면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로씨야의 이러한 대응조치들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지지를 받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반로씨야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강권과 전횡, 독판치기의 능수인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발생초기부터 로씨야를 걸고들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이 나라에 들씌웠다.

미국은 로씨야를 《제국주의》로까지 묘사하는 등 제멋대로 비방중상하며 국제적인 여론전을 조성하였다. 유럽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저들의 반로씨야제재강화에로 부추겼는가 하면 랭전의 유물인 나토무력을 동유럽나라들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주변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최근 로씨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여 강력한 반로씨야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전로인민전선행동연단에서 미국의 대로씨야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를 모욕하려는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향하에 복종시키려는것이다.》라고 하면서 《력사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은 로미관계를 걷잡을수 없는 랭전에로 몰아간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다시금 폭로하고있다.

외신들은 새로운 로미랭전의 끝이 묘연하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명백하다. 이 기나긴 싸움에서 패자는 미국이 될것이라는것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패권주의, 지배주의는 더 이상 통할수 없다.

본사기자 박 송 영

ㄱ-41186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